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정치총파업 실현!  
노동자혁명당 건설!

# 혁명

## 경고총파업 특보

발행일 : 2012년 6월 28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E-mail : wrp@jinbo.net

생존권 · 노동기본권 쟁취로 떨쳐 일어선 총파업!

# 정권과 재벌 박살내는 7-8월 대중총파업으로 확대하자!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을 대변한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전개하는 투쟁이다. 이 총파업은 표준임제와 체불임금 등 생존권과 함께 노동3권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총파업이다.

### 총파업의 물꼬를 텃다!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이 물꼬를 텃 총파업!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끝장내는 총파업으로 만들자! 쌍차, 재능, 쿨트콜텍, 코오롱 등 장투사업장 노동자들이 투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총파업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는 선봉에 서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사내하청 철폐투쟁, 완성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철폐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투쟁 등, 7-8월 대중총파업의 거대한 물결로 솟구치게 하자.

결코 자본과 정권의 협박과 탄압에 굴해서 주저앉을 총파업이 아니다. 활화산처럼 터져나오

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시 모면하고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 기만적인 회유책을 던진다고 중단될 총파업이 아니다. 협상이 아니라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할 때다.

민주당, 야권연대 정치인들의 중재 따위에 기대지 말고 오직 우리 투쟁의 힘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번에 반드시 요구안 완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어선 안 된다. “반 MB 선거 심판” 같은 헛소리는 지난 총선으로 충분하다. 대선까지 갈 것 없이 이번 총파업투쟁 확대로 자본가 정권 박살내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야권연대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니 “재벌개혁”이니 그럴싸한 구호들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조금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 총파업투쟁의 표적은 자본가 정부와 재벌이다!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쌓아올린 재벌들의 거대한 부와 이윤에 대해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 몰

수·국유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표준임제와 체불임금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 재벌 계열사들인 정유사와 대형운송사, 건설사들 모두 몰수 국유화하여 이들 산업을 노동자통제 하에 운영하면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총파업은 이러한 길을 가로막는 이명박 자본가 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정부를 세우는 투쟁으로까지 곧장 이어져야 한다.

오늘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물꼬를 텃 총파업은 7-8월 대중총파업의 거대한 물결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또 다시 노동자를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선거심판론을 총파업의 힘으로 끝장내고 노동자혁명당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권력을 쟁취하자. **혁명**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에 나서자!



통합진보당 사태는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가 이제 완전히 끝장나버렸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미 올해 초에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 통합한 것에 이어 총선에서 민주당과의야권 연대에 목을 매더니 급기야 현 통진당 사태를 거쳐 국민정당으로 변신하는 등, 그 동안의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최종 파산을 맞고 있다.

## 야권연대/ 통진당 사태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

이미 노무현정권 시절 민노당이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때부터 독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공공연하게 배신당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래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민주대연합 · 반MB 야권연대 기치 아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본격적인 계급협조 행보를 펼치면서 이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략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도록 몰아간 것이다.

또한 야4당 중재단을 통해 2010년 12월 현자 비정규직 25일간 점거투쟁을 비롯해 쌍용차, 금호타이어, KEC, 한진중공업 등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다.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 등 현재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민주당과 합작하여 이렇게 노동자투쟁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린 뒤 이명박정권 반대투쟁, 한미 FTA 반대투쟁 등 총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국투쟁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당의 지지부대로 몰아갔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실종되어버렸다. 이번 통진당 사태와 이를 기화로 한 국민정당으로의 '새로나기'는 이렇게 이미 파괴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확인 사살하는 사태일 따름이다.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되찾아야 한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파괴와 실종, 공백,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노동자운동의 정치 지형이자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현주소이다. 이 상태로는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 연립정부 수립을 위해 얼마나 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략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지 모를 정

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계급 현실이다. 정리하고 ·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비롯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과 민주노총 총파업, 사내하청 폐지 투쟁 등 이대로 가다간 모든 노동자투쟁이 대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 창출을 위해 종속되고 거기에 복무하도록 강요받는 상황 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계급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새롭게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계급 독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기 위해 팔아넘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 빼앗긴 계급적 독자성을 수복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계급의 일반 과제이다.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계급협조 고리를 끊어내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 독자 정당을 결성하라! 노동자운동 내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을 되찾아라!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절대적인 지상과제를 나의 임무로 부여잡고 함께 투쟁에 나서자! **역명**

